

유다서 묵상 4
(10/24/2020, 토)

찬양: 449(377)(예수 따라가며)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유다서 1:8-10

말씀에 대한 이해

위의 구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성도들을 경고한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꿈꾸는 이 사람들”(8 절). 8 절 -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이라는 말은 이단자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이 마치 꿈을 꾸고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들처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단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잘못된 신비주의와 광신주의입니다.

사도 유다는 **“육체를 더럽히며”**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들이 영적 체험과 신비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너무나 불경건하게 행하며 무절제한 육체적 방탕과 타락에 젖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울러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의 **“권위”**란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였고, 교회와 교회를 이끌어 가는 사도들의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광을 비방”**하였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독샤’**인데, 본문에서는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로 봅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천사들을 업신여긴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 질서 등을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것과 스스로 타락하고 악행을 일삼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타락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9 절을 통하여 영지주의자들의 행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9 절 -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는 이야기는 위경 중의 하나인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고 하였고, 마귀는 그 시체를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로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며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숭배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귀는 그 시체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미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장 미가엘은 왜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미가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9 절)**라고 하였는데, 미가엘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므로 자신이 주권자처럼 행동하

지 않으려고 했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사도 유다가 위경인 ‘모세의 승천기’를 인용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비록 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이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에 대해 좀더 묘사합니다. **10 절 -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은,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적인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체험하고 가졌다고 하는 영적 지식은 이성적으로 적절한 분별력을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짐승들처럼 생각과 분별없이 본능에 따라 받아들인 것, 아주 수준이 낮은 인식임을 말합니다. 아울러 이 말은 심각한 육체적인 방종과 타락에 빠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며 자아도취적인 체험에 의존한 신앙, 제대로 된 판단과 분별이 없이 즉흥적이며 육신의 감각과 본능, 직감 등에 의존하는 신앙, 아무것도 모르면서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마음,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천사들을 서슴없이 비방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활동하는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아울러 양상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역시 내 안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적 습관과 경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늘 성찰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의 체험, 지식, 경륜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인정함으로 늘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을 가집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심판자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중적인 영지주의자들과 달리 순전하게 믿는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실천함으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배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육체의 타락과 방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화를 이루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3. 선교지들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